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11)

天台圖法師自誠(천태원법사자계)

三界悠悠一箇圓 轉生靈受散他
삼계유유일영오 기생생령수산초
本來面目久沈埋 野馬無常空響鼓
본래면목구침매 야무무강자표고
欲火燒殘功德林 逆波劫入無明海
욕화소잔공덕림 서파경입무명오
紛紛萬類爭鳴 嗚嗚嗚嗚沈還學
분분만류기중문 추추명명침학거

我從箇地一何晚 隨處安養空流轉
아차별지일하만 수파축량공유전
追思古聖與先賢 抑哉令人蹙蹙蹙
추사고성여선현 업메람인독수난
而今我生主人翁 生死來來我誰管
이금축주주인옹 생사마래아수관
昔時技倆莫施로 今日生涯須自勉
昔시기량막시정 금일생애수자면

삼계의 저 아득한 감옥에 생령을 고베 사슬로 묶어서 신산고초를 받게 하구나. 본래 면목이 오래도록 파묻히니 야생마(분별사상) 고베없이 제멋대로 날뛰도다. 욕심의 불은 공덕의 숲을 태우고 흘러가는 물결 (번뇌 상념 또는 제아뢰아식)은 무명의 독안으로 흘러나니. 어지러이 떨어진 만류는 한그릇 가운데 가둔 모기. 벌레 따위라 짹짹하며 우는 소리가 어지러히 끊겼다 다시 들리다 한다.

슬프도다, 내 깨달음이 어찌 이리도 늦어져 번뇌물결 따르며 헛되이 생사를 돌고 도는가. 옛 성현들을 생각하니 소매로 얼굴가리고 남(성령) 보기 부끄러워 홀로 얼굴 붉힌다. 이제라도 주인공(참나, 진심)을 다 잡아두면 생사의 마군이 오더라도 누가 나를 관리하라. 옛 재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금생에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 힘쓸지어다.

亦會天宮殿中遊 也向龍宮與龍遊
역회천제전중유 아향공궁과리자
循環又入胞胎 交構難離成未來
순환우담입포태 교구성조성말취
一包龍血脈扶持 數載白眉權杖
일포능혈장부지 수경백골권장주
七清氣不沈歸 六賊爭鋒誰作主
칠청기부지귀 육적쟁봉수작주

是非窟裏莫回頭 聲利門前高麗眼
시비굴리막회두 성리문전고관안
但於自己究竟尤 肯與時流較長短
단어자기결경유 공여시류교장단
一點靈光在眼西 萬海無事任舒卷
일점영광안안서 만해무사任重舒卷
不於鰲角獨虛名 願向金臺預高蹻
불어각각독허명 독향금대에고선

일찍이 도리천 제석공서 놀다가 열라대왕의 젊은 기마승으로 들어가 삼아졌고 돌고 돌아 또 태수에 드니 고기등이로 영켜 거품같은 육신 이루어도다. 한 보따리 괴와 고를(체역) 잠시 붙들어서

(세간사) 시비의 굴속에 머리를 돌리지 말고 명성과 이익의 문 앞에서 눈을 높이 뜨라 (명리를 대수롭게 보지 말라)

헛된 이름 도적질 말고 부처자리 참예하라 이제라도 진심 잡아두면 누가 나를 관리하라

몇 줄기 흰 배로 버틸기둥 세웠나니 칠정(오욕칠정)은 견잡을 수 없이 달려 회귀할 줄 모르고 (내관이 안됨) 육근육적은 날카로이 다루니 누가 주인이리오.

다만 자기(내면 마음자리)에게서 허물을 찾을 지언정 어찌 시류로 더불어 잘 잘못을 비교하라 한 점 신령스런 빛 (마음의 빛)이 서방을 비추면(회광반조의 뜻) 만가지 티끌세상 일에 쫓

春風不改昔時波 依舊貪嗔若浪虎
춘풍불개석시파 의舊貪嗔若浪虎
촌풍불개석시파 의구탐진약랑호
改頭換面弄機關 忍氣吞聲受辛苦
개두환면용기관 인기탄성수신고
貴體親我與人 是非笑等今猶古
귀체친우어여인 시비영등금유고
金烏玉兔自磨磨 雪鬣朱鬃磨城土
금오육토자미공 설빈주안진성토

고 퍼는 것 자재하리라. 달팽이 쉼 (보잘 데 없는 것)에서 헛된 이름 도적질하지 말고 홀로 금대(부처자리)를 향해 선불당에 참예하라.

봄 바람이 옛 물결 고치지 아니하니(새 몸 받았으나 속세의 습은 고쳐지지 않았으니) 예나 다름 없이 탐진은 마치 이리·호랑이처럼 사납도다.

從他轉死與生老 只此一回相活後
從他轉死與生老 只此一回相活後
종타병사여생로 자차일회상활후
修行惟有下稍難 嗚起脊梁木放倒
수행유유하초난 수기척량휴방도
莫教靈定盤盤 自家牢守中寶
막교착인정반성 자가외수의중보
願司法成與我 共願白牛遊海道
원법계연여전 공가백우유지도

머리 고치고 얼굴 바꾸고 기관을 희롱해도 (예전 모습과 다른 모습 지냈어도) 기운을 잡으 소리를 머금어 (한과 술음을 머금었으니) 신산고초를 받는구나. 귀·천·현·우·나와 남의 분별, 시비와 영욕이 예나 지금이나 같은지라 금까마귀(해·빛) 옥토끼(달·밤)가 질로 허풍을 가르니 흰 수염 (늙은이) 붉은 얼굴(젊은이)이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내버려두고 다만 한번 돌아보고 괴로워 할뿐 수행은 오직 맨 끝에 가서 어려움이 있으니 허리 곧추 세우고 그릇된 생각을 쉬어라

정반성(자율의 첫눈·무계에 관계 없는 자리·제 84)을 그릇 알아 가르치지 말고 제 옷 가운데 보배(법보경 수기품의 비유·참나)를 골게 지켜라. 온 법계의 원수와 친한 이 다함께 흰소(일불승)에 명에 걸고 직도(열반 해탈의 도)에 놀기를 바라노라.

龍眼

“지극한 원력과 실천 있으면”

“중생의 마음은 본래 공적(空寂)한 것이예요.”

깨달았느니 깨닫지 못했느니, 점수(漸修)니 돈오(頓悟)니 갖다 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말과 물건도 붙지 않는 곳, 이 중생의 근본 자성(自性)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구법자(求法者)예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중들은 그들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적은 달라도 모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먹을 것과 권력을 대중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거룩한 무엇을 얻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참구하는 수행자들이죠. 법(法)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걸 구하려는 사람들이지요. 가장 커다란 무엇을 얻으려는 자들이 바로 구법자예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도 얻으면 내어 놓을 때가 있어요. 대통령 자리도 금은 보화도 언제까지나 '내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법' '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위대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법이지요.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는 것

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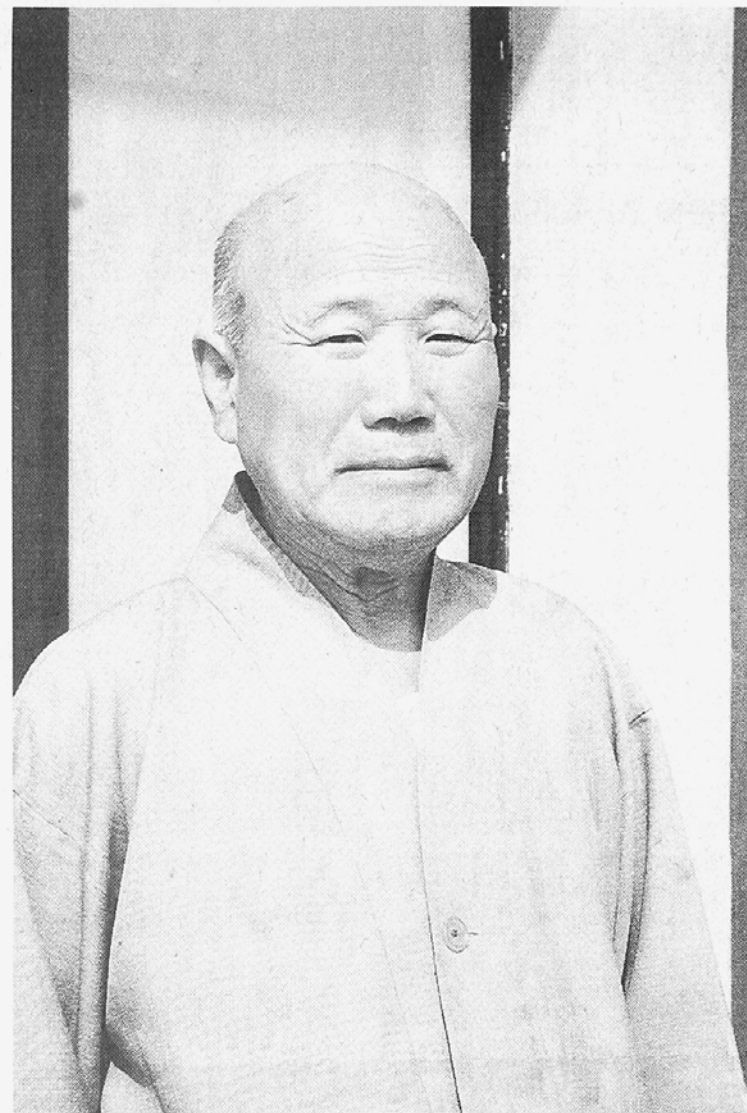
이 세상의 수 많은 중생들은 대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원력을 성심껏 세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극한 정성과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선업(善業)을 쌓으려고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선업보다도 무업(無業)이 더 좋겠지만... 업의 종류는 수백 수천가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업 조차도 없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우선은 선업을 잊지 말고 실천하는 일이 사회인들로서는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는 금생에 도를 얻고 여러지(如來地)에 들면 다행이거니와 만약 대도(大道)와 정법(正法)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이것을 이루려는 서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승지경(阿僧祇劫) 이후라도 그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중생은 대도를 이루지 못하는 한 사생(四生) 육도(六道)의 윤회를 되풀이 해야 합니다.

중생의 아집과 그릇된 견해, 번뇌와 선(善) 그리고 악업 등으로 인해 중생은 태생(胎生) 난생(卵生) 습생(濕生)



도원스님 고운사 조실

약력

- 1921년 9. 15. 생
· 41년 만공스님 은사로 해인사에서 득도
· 해인사강원 대교과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현 심보사 주지

화생(化生)으로 거듭 나면서, 육도의 윤회전생을 계속합니다. 중생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도를 돌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 하며 정신적인 진화를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하나되는 그릇

정법의 자리는 이런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난 삶과 죽음이 없는 세계로서 영원한 행복과 안락을 누리며 우주와 하나 되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법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큰 법을 얻고 삼계를 벗어나 다시금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해

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전제해 온 기복(祈福)불교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의 세계에서 이 기복불교가 정법은 아니기에 다만 방편으로서 이를 활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 세계에서는 당장 필요한 것이 삶의 안락과 생존을 위한 보이지 않는 도움이 필요하겠지요. 기복불교가 만연하는 것은 용이 않지만 무조건 배격하려고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나 아들 딸 잘 되라고 하는 기도는 사회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요. 하지만 커다란 정법을 얻어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려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을 넘어

서야 합니다. 정법을 얻어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마르고 허공이 꼭 차도록 대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 후 성불하겠다는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어른들을 본받아 해야 해요. 그들은 자신을 버리고 온 중생을 위해 원력을 세우기에 중생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부와 보살이 대보살이 되려면 보리(菩提)의 지혜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는 소송과 대승의 법이 있지만 두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법을 따라 수행을 하면서도 대승의 대보살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

불교 성순 교지례

백 두산·연길·북경 5일
·출발: 6월 3일
·동참금: 100만원
·일정: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천전-
·출발: 6월 2일
·동참금: 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 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 인원: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출발: 6월 4일
·동참금: 95만원

대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출발: 6월 5일
·동참금: 65만원

국불교유적지 13일
·출발: 5월 30일
·동참금: 195만원
·일정: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송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시르 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출발: 6월 3일
·동참금: 188만원
·일정: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둔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네팔 10일
·출발: 5월 27일
·동참금: 230만원
·일정: 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장제-시가제-라사-카트만두-서울

도·네팔·태국 10일
·출발: 5월 26일
·동참금: 150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살리-루시나가르-롬비니-카트만두(보드닛·스와이엠티)-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 사원)-서울
■한국측 제공■

HVECHO ADVENTURE TOURS, LTD.
이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 (대)